

## 고향과 말

-만해와 원효를 중심으로-\*

김 원 명(한국의국어대)

【주제분류】 한국철학, 불교철학

【주 제 어】 고향, 일심, 언어, 불교대중화

【요 약 문】 이 글은 첫째, 고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만해의 오도(悟道)와 원효의 오도의 순간을 통한 고향 체험을 비교하면서 맛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가 현재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색하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언어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만해의 불교대중화 고민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불교적 사색을 통해 그리고 원효의 불교대중화 고민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불교적 사색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불교적 오도는 만해에게는 삶의 근원으로서의 고향 체험과 같은 것이며, 원효에게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체험은 그들이 중생구제 중생이익을 위한 삶의 여정을 가게 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본다.

그들의 불교대중화 길에서 그들의 오도 전달을 위한 언어 이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대승기신론』의 언어 이해에 바탕한 진리의 언어와 중생의 언어 사이에 소통가능한 길에 대한 사색을 하고 있다. 가장 쉬운 말로 진리를 중생에게 소통하는 실천으로 만해는 당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효는 중생의 말로 그들의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에 도달케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1. 들어가는 말

고향이란 무엇인가?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때론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향은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은 곳이고, 머리를 향하는 곳이고, 평생 그리움으로 목마른 곳이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존재의 집이며 근원이다.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의 고향은 충남 홍성이고, 원효(元曉, 617~686)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산이다. 여기서 그들이 출생해서 자란 고향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둘은 시대적 배경과 사상을 비교하기에는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그들의 ‘고향’은 그들에게 근원적으로 끌리고, 그들을 흔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치할 것이다. 이 글은 그들을 근원적으로 끌리게 하고 그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곳, 존재의 원초적 바탕으로서 영원한 그리움을 주는 곳에 관한 그들의 존재론적 터에 관한 소고이다.

만해는 ‘고향’이란 말을 그가 깨달은 후 ‘존재의 근원’이란 의미로 그의 오도송(悟道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효의 현존 저술에서 ‘고향’이란 말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근은 『원효의 ‘고향’ 이야기』에서 그가 말한 원효의 ‘일심’을 ‘삶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sup>1)</sup>처럼, 원효에게서도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을 사유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서양철학사에서 존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을 마치

1) “일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근원과 하나이며 둘이다. 그 마음은 때로, ‘때 아니게’ 삶의 근원에 나는 울림을 느끼며 놀라워한다. 그리고 마음이 근원과 둘이며 하나일 때 근원 안에서 울림의 맛을 본다.” 박정근, 『원효의 ‘고향’ 이야기』, 『하이데거연구』 제1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두리터, 2007, 877쪽.

과약 가능한 무엇으로 그려내 온 형이상학의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존재의 근원'은 존재가 있고 그것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로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 근원성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또 이 말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존재의 근원'을 '고향'이라는 말로 바꾸어,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맛을 느끼는 곳이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만해와 원효의 '고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말 나온 김에 먼저 저들의 오도송을 음미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요즘 한창 문제로 부각되는 입말과 글말 그리고 학문언어 문제를 반성해 볼 단초가 될 언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생각을 이끌어 보고자 한다. 이 주제도 '존재의 근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고향

만해는 38세가 되었던 1917년 12월 3일 설악산 오세암에서 좌선 중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이 깨달음의 시(悟道頌)를 지었다.

“사나이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그네의 시름 속에 있었나?  
 한 마디 소리에 삼천 세계가 부서지니,  
 눈 속의 복숭아꽃 산산이 흩날리네.”<sup>2)</sup>

2) 한용운 오도송,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天界 雪裡桃花片片飛” 끝의 세 글자를 만공(滿空, 1871~1946)이 “片片紅”으로 고쳐주었고, 이를 인정하였다고도 한다. 즉, “눈 속의 복숭아 꽃 조각조각 붉더라.” 또 “날으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고?”라고 만공이 반문하매, 만해가 “거북털과 토끼 뿔이로다.” 하였고, 이에 만공이 크게 웃었다. 『만공법어』, 덕숭총림, 1986, 134쪽 참조.

만해(萬海)는 한겨울 밤에 바람에 떨어지는 어떤 물건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붙어 있는 의정(疑情)을 단박에 깨치었고, 오도송(悟道頌)을 지었다. 만해는 오랫동안 고향을 찾아 헤맨 것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나그네의 시름 속에 있었'다가 드디어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나 고향인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나 자신이 찾던 존재의 집이고 존재의 근원지임을 깨닫게 되니 세계는 복숭아꽃이 날리는 무릉도원이 되고 극락이 되고 또 자신이 그리 그리워하던 고향이 되고 불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 모두가 고향이 되는 '사나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나이'가 '두구대사'<sup>3)</sup>이고 '목격장부'<sup>4)</sup>이다. '장부'가 되고 '사나이'가 되면, 그가 가는 곳은 모두 고향이 된다. 만해가 1905년 인제 백담사에 가서 연곡(連谷)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1907년 4월 건봉사(乾鳳寺)에서 수선안거(首先安居)를 성취한 후 10년 하고도 8월이 지나 추운 겨울 12월 3일 눈발이 유난히도 흠날리는 강원도 설악산 산골의 오세암에서 오도를 하여 사나이가 된 것이다. 만해

3) 두구대사(杜口大士): '두구'란 법의 현묘함을 언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림을 이름. 『주화엄경제법계관문송(註華嚴經題法界觀門頌)』 권하(대정장45, p.702b)의 "摩竭掩室, 毘耶杜口"에 보임. "마갈엄실(摩竭掩室)"이란 불타가 마가다국에서 성도한 처음 삼칠 일 동안 입을 열어 설법하지 않아 마치 방문을 닫아 걸은 듯했으니, 이는 불법의 깊은 뜻은 결코 언설로 전달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 '비야두구(毘耶杜口)'란 유마거사가 비야리성에서 병이 나자 여러 보살들이 모여 각기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말할 때, 문수(文殊)보살이 이에 대해 유마에게 물었으나 유마는 묵연히 말이 없었으니, 불이법문은 결코 말로써 나타낼 수 없음을 표시한 것. 대사는 보살의 이칭. 또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 "스스로 두구대사와 목격장부가 아닐진대 누가 말이 떠난 중에서 대승을 논할 수 있으며, 생각이 끊어진 데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것인가?(自非杜口大士, 目擊丈夫, 誰能論大乘於離言, 起深信於絕慮者哉.)"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원효의 말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다.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20~21쪽.

4) 목격장부(目擊丈夫): 『장자』의 『전자방』 제21에 "若夫人者, 目擊而道存矣. 亦不可以容聲矣."에서 나온 말. 공자가 온백설자(溫伯雪子)를 만나보고서 한 마디도 안 하자, 그의 제자 자료가 그 이유를 물으니, '저와 같은 사람은 서로의 눈이 마주치기만 하여도도가 있음을 아니, 말로써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을 이름. 은정희 역주, 같은 책, 같은 곳.

는 오도한 자기면목을 ‘눈 속의 복숭아꽃’으로 묘사하였다. 복숭아꽃은 한여름을 향한 봄 4월에 일주일가량 만개하는 꽃이다. 12월 3일 추운 겨울 오세암에서 수행 중 바람에 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삼천 세계가 부서지면서 그의 의정은 떨어졌다. 그리고 훔날리는 눈발 속에서 봄에 피어 만개했던 복숭아꽃이 그대로 있음을 알았다. 물론 훔날리는 눈발에 무슨 복숭아꽃을 보았겠는가? 그것은 “거북 털과 토끼 뽕일 뿐이다.” 이것은 의정이 떨어져 나간 선사의 시적이며 선적인 아름다운 표현이다.

만해는 온 천지가 고향인 사나이가 되어 1931년 10월 1일 발표한 「나와 남」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한다.

“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도 아니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면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없다.

나는 다른 것의 모임이요, 다른 것은 나의 흠어짐이다.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다. 갈꽃 위의 달빛이요, 달 아래의 갈꽃이다.”<sup>5)</sup>

만해는 앞서서 보았듯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또 다른 자신의 시름을 해결하게 된다. 만해는 깨달음의 순간에 ‘나’가 떨어져나가 ‘남’도 없는 곳에도달했다. 만해는 오랫동안 구도의 길에 서서 ‘화두’를 들고 다녔을 것이다.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시대가 슬펐을 것이다. 이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과 시대를 어떻게 구원하여야 할까? ‘무아’ ‘공’ ‘자비’ ‘보살’ ‘자유’ ‘평등’ 등의 낱말들과 함께 시대를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무르익어 떨어졌다. ‘내’가 떨어져 나가면서 삼천 세계가 다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는 그런 자신이 비로소 사나이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런

5)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 2』, 新丘文化社, 1974, 351쪽.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아는 곳이고 누구를 만나도 다 아는 이들인 이다. 한 다리 건너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아는 이들이다. 그들은 존재의 그 물망에 모두 얽혀 있는 고향 사람들(mit-sein)이다.

고향은 남이 없는 곳이다. 아니 나·남이 잘 구분되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낯선 것이 없다. 고향에서의 일은 묘하다. 남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남 일이라 생각하는 곳이 고향이다. 어렸을 적, 장날 장에 구경나가 돌아다니다 보면, 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누군지도 모르는 형들이 “너 누구 동생이지?”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들이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너 누구 조카지?” 하며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반가워하며 뭘 사주기도 한다.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칠라치면 “인사도 안 한다”고 패썹하다는 듯 꾸짖기도 한다. 고향에서는 낯선 이들도 사실은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분들이다. 존재의 그물망에 사람들이 모두 얽혀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추억들이다.

고향에서는 나와 남이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 개인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나 남은 상관적인 관계이면서 내 안에 다른 것이 모두 들어와 있고, 다른 모든 것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다. 고향에 서 있는 은행나무는 어릴 적 노란 은행이 열리던 가을날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함께 은행잎을 줍고 냄새나는 은행을 주워서 물가에 가서 껍질을 까고 처마 밑 봉당에 말려서는 화롯불에 구워 먹었던 은행나무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억 속에 살아 있다. 나뿐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함께 기억 속에 그리고 무의식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올해의 가을 달빛 아래서 노란 은행잎과 노란 은행들을 떨구고 있는 것이다. 달빛은 갈꽃 위에서 함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갈꽃은 달빛 아래에서 함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고향에서는 나와 남 모두가 각자 제 멋을 내면서도 제 멋대로만 살지는 않으며, 절묘한 어울림의 질서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되찾아가게 만드는 고향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곳이다.

원효는 44세가 되었던 661년(문무왕 원년) 지금의 경기도 화성 근처 어느 산의 무덤 곶에서 한밤중에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시(悟道頌)를 지었다.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라 편안했는데, 오늘밤은 귀신의 집에 의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므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삼계(三界: 욕계·색계·무색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현상이 없는데 어디서 따로 구하겠는가!”<sup>6)</sup>

원효는 당나라에 가서 현장(玄奘, 602-664)으로부터 새로운 유식(唯識) 이론을 배우기 위해 지금의 경산 혹은 경주에서 경기도 화성 근처인 당주계(唐州界)로 향했다. 원효는 가는 도중에 인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산중 어둠 속에서 비바람을 만나 한 땅막에서 피곤한 몸으로 하룻밤 묵게 되었고 곤히 잠에 떨어지게 되었다. 원효는 아침에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그곳이 땅막이 아니고, 시체가 뒹구는 무덤 속임을 알았다. 비가 그치지 않아 그는 하룻밤을 더 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원효는 동티가 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곧 그에게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원효는 “삼계(三界)가 오직 마음

6) 贊寧 等 敕撰, 『唐新羅國義湘傳』, 『宋高僧傳』권4, 대정장50, p.729a14-5,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龕墳不二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求”; 고영섭, 『원효의 통일학』, 『원효(한국의 사상가 10인)』, 예문서원, 2002, 165쪽 번역 재인용.

이요, 만법(萬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랴”하고 다시 신라로 되돌아 왔다.

마음밖에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날에 비로소 그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진리는 당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는 이처럼 인간에게 내재된 마음의 본질과 세계 그리고 마음과 세계와의 관계를 꿰뚫어 보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에 세계가 들어왔고, 세계를 비추었다. 원효의 이 같은 깨달음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달은 이야기로 11세기에 각색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흥미를 더해주었다.

원효는 자신의 마음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가 신유식을 배우려고 당으로 유학하려 했던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인 현장의 유식을 비판적으로 극복하였다. 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깨달음은 그를 당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한다.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최신 이론이었던 신유식을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의 유학 꿈을 품어 온 원효가 유학길에서 진리가 당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왔다. 새로운 학문을 현장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과 존재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당시 신라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며 찾았다. 원효는 치열한 수행과 파계를 하였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년 저작 가운데 인명론(因明論)서인 『판비량론(判比量論)』에서 진나(陳那, Dignaga, 400?~480?)와 현장(玄奘)을 넘어서게 된다.<sup>7)</sup> 그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죽였다. 죽어서는

7) 원효는 오늘날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3rd Earl Russell OM 1872~1970)의 ‘이발사의 역설(barbar’s paradox)’에서 만나는 역설의 문제를 고민하

오늘날까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정신이 살아 있다. 그에게는 전국의 천촌만락이 바로 고향이었다. 그는 천촌만락의 고향을 다니며 고향 사람들과 함께 고향의 노래 무애가(無碍歌)를 부르며, 고향의 춤 무애무(無碍舞)를 추면서, 고향 사람들 속에서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弘益衆生〕 그들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不一不異〕 삶을 살았다.

만해와 원효의 오도송에서 표면적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오도의 표면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둘에게는 진리에의 간절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에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계기의 순간에 만해의 의식이 솟구쳐 오르며 초겨울의 '홀날리는 눈 속에서 5월의 복숭아 꽃'을 보게 되었고, 원효의 마음이 터져 '내 마음 안에서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자각하였다.

만해는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 수행 중 그 순간이 찾아왔다. '신동'으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시골 소년이, 어려서 아버지와 형을 잃고 헤매며 고향을 잃고 천지사방을 헤매며 타향의 시름을 앓았고 또 나라를 잃고 그와 같이 나그네살이 하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온몸으로 앓았던 만해가 설악산의 오세암에서 12월의 눈 내리는 차디찬 겨울밤 참선 수행 중에 밤바람에 떨어지는 웬 물건 소리에 남아(男兒)가 되었다. 일격을 맞고 그는 이제 사나이가 되었다. 그 결정적 순간이 일어났다. 겨울의

---

고 불교 인명학적으로 해결하였다. 김성철과 김상일은 원효의 『판비량론(判比量論)』이 인도의 진나(陳那, Dignaga, 400?~480?)와 당나라의 현장(玄奘) 인명학(因明學)의 오류들을 비판한 인명학 최고봉의 작품이라 평가하였다. 또 괴델(Goedel, Kurt, 1906~1978)의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라든가 칸트(Kant, Immanuel, 1724~1804)의 이율배반(antinomy)과 같은 논리와 견주는 오래된 현대 이론이라 평가하고 있다. 김상일, 『원효의 판비량론(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지식산업사, 2003 참조; 김상일,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지식산업사, 2004 참조;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참조; 김원명, 『원효』, 살림, 2008/2010 2쇄 33-35쪽 참조.

흘날리는 눈발 속에서 5월의 복숭아 꽃을 보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언어도단의 순간이 찾아왔다. 만해의 눈에 비치는 곳 모두가 고향이 되었다.

전날 밤 땅막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을 다음 날 주검이 뒹구는 무덤 굴에서 귀신의 동티로 잠 못 이루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원효에게 갑자기 그 순간이 찾아왔다. 문제는 마음임을!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구유식이니 신유식이니, 나와 남이니, 고향이니 타향이니 하는 둘이 ‘하나가 아니지만 둘이 아님’(불일불이(不一不異))을! 원효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진리가 이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임을!

마음이 온 세계를 만들고 비춘다는 것, 그리고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낫설지 않은 고향이 되는 것은 근원과 함께 하나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로 함께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비출 대상이나 비추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뜻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있으려면 또 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따로 있다는 뜻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들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서 크게 그러한 말이 된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말이 오묘하게 환중에 계합하고,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가 된다. 그래서 표현된 중지가 한계가 없다.”<sup>8)</sup>

### 3. 우리가 써야 할 말

만해는 말을 여의지도 말에 얽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가 견성성불(見性成佛)의 한 길이라면 불리문자(不離文字)는 성(性)의 원성(圓成)인 동시에 도생(度生)의 대용(大用)이 되는 것이다. … 四九년 설법도 일찍이 문자를 여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지는 능히 색(色)에서 공(空)을 보고 공에서 색을 볼지니, ……”<sup>9)</sup> 그는 말 많은 속

8) 元曉 述, 『金剛三昧經論』, 한불전1, p.604b17-9, “不然之大然故, 能說之語妙契環中; 無理之至理故, 所詮之宗超出方外.”

에서 말 없음을 보고, 말 없는 속에서 말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향의 말은 친근하다. 고향의 말은 고향 사람들이 통하는 말이다. 고향 사람들은 먼발치의 그림자라도 누군지 알고, 말 없는 눈짓과 낮빛으로도 많은 생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만해가 고향의 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고향의 말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부처는 번뇌에 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알아듣고 번뇌를 떨쳐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설들을 하였다. 이 설들은 부처가 자신의 깨달은 바를 설한 것이긴 하지만, 중생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여 스스로 번뇌를 떨칠 수 있는 말들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처 말은 중생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들이어야 한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근기에 알맞은 말들이어야 한다.

만해는 부처가 설한 말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유정·무정에 이르기까지라도 그 유를 따라서 각각 그들의 음성으로 법을 설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함이 없도록 하신 것”이라 한다.<sup>10)</sup> 아래 글은 『불교(佛敎)』 제3집(1937년 5월 1일)에 발표한 글 『역경(譯經)의 급무(急務)』 중 일부이다.

“부처님은 원음낙락(圓音落落)의 일음(一音)으로 일상일미(一相一味)의 진제(眞諦)를 설하시되, 일체 중생은 각자 유(類)를 따라서 해(解)를 얻는 것이 일체 무애(無碍)의 대법에 있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마는, 중생의 차별심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법화회상(法華會上)에 일찍이 일승(一乘)을 설하시다가, 일체 인천(人天)의 의구심을 내어서 신해(信解)하지 못하므로, 다시 삼승(三乘)을 설하시고 나아가서 성문벽지불(聲聞辟支佛)을 제도하시기 위하시는 성문벽지불의 신(身)을 화하여, 그 유

9) 한용운, 『文字 非文字』, 『禪苑』 第四號, 1935.10.15.,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 2』, 新丘文化社, 1974, 304쪽 재인용.

10) 한용운, 『譯經의 急務』,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2』, 新丘文化社, 1974, 223쪽.

에 들어가 그들에게 적당한 법을 설하시고, 이에 천룡야차(天龍夜叉)·이수라(阿修羅) 및 축생(畜生)·조류·어족(魚族)·곤충까지라도 그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身)을 화(化)하셔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적당한 법을 설하셨느니, 그것은 부처님의 자증(自證)하신 법이 아무리 무상무외(無上無外)의 대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적당한 법을 설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제도할 수 없으므로, 입니입수(入泥入水), 실로 방편을 다하지 아니하심이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신 것이다.”<sup>11)</sup>

만해는 부처가 모든 중생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편안히 알아듣고 이해하는 말들로 말을 하였다고 이해한다. 모든 방편을 다하여, 물로도 들어가고 흙으로도 들어가고 하늘을 날기도 하며 들판을 뛰기도 기어 다니기도 하며, 물고기, 흙 속의 지렁이나 곤충 그리고 파충류 등 못 생명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몸과 낮빛으로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제도하였다는 것이다.<sup>12)</sup> 고향에서 서로 친근하게 알아듣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쉽게 알아듣는 말이어야 한다.

만해의 ‘대중불교화’ 운동은 ‘고향 말’ 운동에 다름 아니다. 그의 대중불교화 운동은 “교리와 문장을 민중을 위하여 평이화(平易化)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광명을 민중의 흥중에, 그 생명을 민중의 골수(骨髓)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11) 같은 책, 같은 쪽.

12) 만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론의 구들은 구마라집(鳩摩羅什, 鳩摩羅時婆, 拘摩羅耆婆, 童壽: Kumārajīva, 344~413)이 번역한 『유마경(維摩詰所說經)』과 이수바고사(Asvaghōṣa, 馬鳴, 100?-160?)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며, 원효가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그의 소에서 상세히 하고 있는데, 만해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만해는 1905년 27세에 백담사 이학암에게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을 배웠다. 김원명, 『원효 『기신론해동소』에 나타난 원음(圓音)의 현대적 이해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19호, 불교학연구회, 2008 참조.

13) 조종현, 『佛敎人으로서의 萬海』,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 2』, 新丘文化社, 1974, 20쪽.

원효는 중생들이 불경은 어려워 잘 알지 못하니, ‘나무아미타불’만 일심으로 외워도 누구나 성불한다고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원효는 귀족불교를 대중불교화한 최초의 한국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불교대중화 운동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물론 그의 깨달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불교적인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대승기신론』의 해석들이 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대승불교 후기에 이슈바고오샤(Āśvaghōṣa) 즉 마명(馬鳴, 100?-160?)이 짓고 수나라 개황(開皇) 연간(550)에 진제(眞諦)가 번역한 『대승기신론』에 위에서 만해의 말에서도 나왔던 원음(圓音)이 나온다.

“경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법이 있긴 하나 중생의 근기와 행동이 같지 않으며, 받아서 이해하는 연(緣)도 다르다. 이른바 여래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하는 사람도 색(色)·심(心)의 업이 수승하여 원음(圓音)으로 한 번 연설하매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하므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래가 돌아가신 후에는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널리 듣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적게 듣고 많이 아는 이가 있으며, 혹 어떤 중생은 자심력(自心力)이 없어서 광론(廣論)에 의하여 이해하게 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중생은 다시 광론의 글이 많음을 번거롭게 여겨 마음으로 총지(總持)와 같이 글의 분량이 적으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여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sup>14)</sup>

14) 마명,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1권)』, 진제 역, 대정장32, p.575c08-17, “修羅羅中雖有此法。以衆生根行不等受解緣別。所謂如來在世衆生利根。能說之人色心業勝。圓音一演異類等解。則不須論。若如來滅後。或有衆生能以自力廣聞而取解者。或有衆生亦以自力少聞而多解者。或有衆生無自心力因於廣論而得解者。自有衆生復以廣論文多爲煩。心樂總持少文而攝多義能取解者。”;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2 4쇄, 68쪽 번역 인용.

만해가 이 구절을 읽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효의 무애가와 무애무애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원효는 이 구절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였다.

“여기에서 ‘원음(圓音)’이라 말함은 곧 일음(一音)이니, 일음과 원음은 그 뜻이 어떠한가? 예부터 여러 논사의 설한 것이 같지 아니하니 어떤 논사는 설하기를, 여러 부처는 오직 제일의신(第一義身)이니, 영원히 만상(萬像)을 끊어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다만 중생의 근기를 따라 한량없는 형체와 소리를 현현(顯現)하신다. 이는 마치 빈 골짜기에 소리가 없으나 부름을 따라 메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처의 편에서 말한다면 소리가 없는 것이니 곧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 가지의 소리니 곧 하나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무슨 뜻으로 일음(一音)이니 원음(圓音)이니 말하는 것인가? 참으로 같은 때 같은 모임에서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성에 따라서 각각 일음을 얻고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 착란(錯亂)되지 아니하니, 이처럼 음의 기특(奇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음(一音)이라고 이른 것이다. 음이 지방(十方)에 두루하여 근기가 성숙한 정도에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음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허공처럼 두루 가득차 별다른 운곡(韻曲)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경에서 이르기를 ‘그 무리들의 음에 따라 중생에게 널리 일러준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sup>15)</sup>

원음은 온 곳에 두루두루 있는 소리다. 그러나 마치 비어서 그 빗이 두루두루 짝 차있고 그래서 아무런 운곡, 즉 소리의 울림과 굽음이 없는

15) 원효, 『기신론해동소(起信論海東疏)』, 한불전1, p.703a09-20, “此言圓音 即是一音 一音圓音 其義云何 昔來諸師說者不同 有師說云 諸佛唯是第一義身 永絕萬像 無形無聲 直隨機現無量色聲 猶如空谷無聲 隨呼發響 然則就佛言之 無音是一 約機論之 衆音非一 何意說言一音圓音者 良由一時一會異類等解 隨其根性各得一音 不聞餘聲 不亂不錯 顯是音奇特 故名一音 音遍十方 隨機熟處無所不聞 故名圓音非謂如空遍滿無別韻曲 如經言隨其類音普告衆生 斯之謂也”;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71~72쪽.

텅빔은 아니다. 듣는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根機]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각각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원효는 “원음(圓音)이 곧 일음(一音)”이라 한다.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둥근 소리가 어떻게 하나의 소리가 되는가? 모든 중생들이 자신들의 부름에 따라 울려 나와 듣는 그 메아리는 자신 소리의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그 각각의 메아리들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각각의 메아리들을 하나의 소리로 알아듣고 혼란 없이 각각 알아듣기에 이런 특징으로 일음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의 측면에서, 부처의 측면에서 각각 일음이라 풀이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처의 측면에서 하나의 소리는 소리 없음으로서 하나의 소리이고, 중생의 측면에서 하나의 소리는 모든 중생들이 각각 알아듣는, 그러나 모든 소리들이 섞이거나 어지럽지 않게 하나로 알아듣는 일음이다.

원효의 설명은 중생의 측면에서도 부처의 측면에서도 일음이라 하지만, 이 두 소리가 어떻게 하나의 소리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처의 편에서 말하면, 부처의 소리는 없다[無音]. 부처는 제일의신(第一義身)으로 영원히 만상(萬像)을 여의어 어떤 모양이나 소리도 없다. 그래서 부처의 소리는 무음이고 무음은 곧 일음이다. 부처의 소리는 (어떤) 특정한 곡조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음인 것이다. 무음이 일음의 근거가 된다. 이를 빈 골짜기에 비유하면, 빈 골짜기 스스로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부름에 따라 그 메아리가 울려 나오는 것과 같이 부처는 어떤 소리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 중생이 있으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르면 빈 골짜기는 그 부름에 메아리를 울려낸다. 스스로는 아무 소리가 없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른 부름에 늘 한 소리를 낸다.<sup>16)</sup>

원효가 소개한 해석에 따르면, 부처가 설한 말은 이제 중생의 부름에 따른 메아리의 말이 된다. 그것은 부처의 말이지만 동시에 중생의 근기에

16) 김원명, 『원효 『기신론해동소』에 나타난 원음(圓音)의 현대적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재인용.

따른 이해와 요구의 말이다.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부처의 말도 될 수 없다. 만해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리 생명의 골수로부터 우러나오는 평이한 말이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리의 말이 되고 부처의 말이 된다.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 말이 존재의 근원을 흔들며 깨우고 이끌어내는 말이다. 중생은 고향 말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느끼고 고향에 살 수 있다. 그러니 고향의 말이 곧 진리의 말이고 부처의 말이다.

#### 4. 나가는 말

만해가 그의 오도송에서 가리키는 ‘고향’은 ‘존재의 근원’에 맞는 정신적 경지를 가리킨다. 원효에게 있어 이와 같은 ‘존재의 근원’에 맞는 정신적 경지를 가리키는 말은 ‘일심’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살펴본 ‘우리가 써야 할 말’은 ‘존재의 언어’이다. 존재의 언어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며 그래서 존재의 근원의 소리를 낼 때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는 만해와 원효라는 두 사람의 존재의 근원 체험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교의 진리체험 근원체험이 거의 유사하게 마음의 자각이고, 그 마음이 세계를 비추고 만들고 조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유기적으로 존재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었으며, 개체로서의 하나와 전체로서의 하나를, 순간에서 영원을 체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이들도 그 범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요즘 우리가 느끼고 고민하는 내용을 영어로 국외의 저널에 소개하면 좋은 점수에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말로 하라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때가 아닐 수 없다. 만해

는 100년 전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당시의 나라 잃은 모든 조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원효는 1340여 년 전에 중생의 근기에 따른 부름에 울려오는 부처의 진리의 말을 깊이 사색하였다. 우리의 고민과 사색이 담긴 맘 편한 우리 고향 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에서 한국인은 이제 고향이 세계이고, 고향말이 세계어인 영어이어야 하는 세계에 살게 된 것인가?

정지용 시인의 '고향'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뿔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참고문헌

- 구마라집(鳩摩羅什) 역,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대정장14.  
마명(馬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1권)』, 진제(眞諦) 역, 대정장32.  
원효(元曉), 『기신론해동소(起信論海東疏)』, 한불전1.  
\_\_\_\_\_, 『금강삼매경논(金剛三昧經論)』, 한불전1.  
찬녕(贊寧) 等 敕撰,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 『송고승전(宋高僧傳)』권4, 대정장50.
- 고영섭, 『원효의 통일학』, 『원효(한국의 사상가 10인)』, 예문서원, 2002.  
김상일, 『원효의 판비량론(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지식산업사, 2003.  
\_\_\_\_\_,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김원명, 『원효』, 살림, 2008/2010 2쇄.  
\_\_\_\_\_, 『원효 『기신론해동소』에 나타난 원음(圓音)의 현대적 이해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제19호, 불교학연구회, 2008.  
박정근, 『원효의 ‘고향’ 이야기』, 『하이데거연구』 제15집, 2007.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2 4쇄.  
조종현, 『佛敎人으로서의 萬海』,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2』, 新丘文化社, 1974.  
한용운, 『譯經의 急務』,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2』, 新丘文化社, 1974.  
\_\_\_\_\_, 『文字 非文字』, 『禪苑』 第四號, 1935.10.15.,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2』, 新丘文化社, 1974.  
崔凡述 외 편, 『韓龍雲全集2』, 新丘文化社, 1974.

〈Abstract〉

**Home and Language**  
- Focusing on Manhae and Wonhyo -

Kim, Won-Myoung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aims at getting a taste of somewhat through a philosophical comparative speculation about the meaning of home in moment when Manhae & Wonhyo had experienced an enlightenment. Second, tries to speculate philosophically the meaning of language in the process of their difficulties which Manhae & Wonhyo had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expressing the Buddhist enlightenment to the public. Their Buddhist enlightenments were, for Manhae, like home experience as the origin of life and for Wonhyo, to come back to the origin of One mind. Their experiences like this lead to have the journey of their lives to save common people indifferent to them. So I examined how did they understand the language giving them their Buddhist enlightenments in the journey.

They all speculate the communicative way between language of truth and one of common people in the base of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Buddha's) one sound & many sounds(of common people's understanding)' in *the Awakening of Faith* written by Aśvaghōṣa.

Manha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translation which is the easiest way to be understood the truth to the ordinary people. Wonhyo taught the easiest words to them to understand the truth based on their deep belief which they would come back to the origin of One mind.

**【Key Words】** Home, One Mind, Language, to Save Common People

논문제출일: 2010년 11월 09일

논문심사일: 2010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1일